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준공을 앞둔 통일거리운동센터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부인과 함께 준공을 앞둔 통일거리운동센터를 현지지도하시였다.

통일거리운동센터는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향상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구상에 따라 일떠선 현대적인 대중운동센터이다.

연건축면적이 1만 3,749㎡인 통일거리운동센터는 건강운동실, 수중초음파실, 건강회복실, 탁구장, 청량음료점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여기에는 체력단련을 할수 있는 달리기운동기재, 자전거운동기재, 노젓기운동기재를 비롯한 61종에 138대의 각종 운동기재들과 현대적인 치료설비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통일거리운동센터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운동기재들의 구비정형과 배치상태, 리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1층과 2층에 전개된 건강운동실을 돌아보시면서 기재들의 특성이 어떤가를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여러가지 운동기재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대중운동센터답게 기재배치를 합리적으로 할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건강운동실 치료를 할수 있게 하려면 전문가들과 아내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지적 계 올려피지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을 돌아보시면서 근로자들이 여러가지 합심하여 사람들의 나이와 신체특성 하시였다. 운동기재를 리용하여 체력단련도 하고 에 맞는 과학적인 기재리용방법을 찾 건강회복실에 들리시여서는 봉사원들

이 물리치료방법을 비롯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야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치료사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3층 건강운동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층과 2층에 비해 잘 꾸렸다고 평가하시였다.

달리기운동기재, 자전거운동기재들이 좋다고 하시면서 체력단련과 치료체육을 위해 근로자들이 많이 찾아올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청소년학생들뿐만 아니라 하루종일 방안에 앉아 일하는 사무원들이 통일거리운동센터에 찾아와 운동도 하고 치료도 받으면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혁명사업에 투신할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신체의 각 부위별로 자극을 주는 현대적인 초음파설비들과 습식 및 건식한증, 사와설비들이 갖추어져있는 수중초음파실도 돌아보시면서 근로자들이 운동과 치료에서 효과를 볼수 있게 봉사활동을 잘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옵겠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하시면서 통일거리운동센터를 잘 운영하여 이곳에서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울려피지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8.25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중에서

《8월 25일은 4월 25일과 더불어 우리 혁명무력건설사와 조국정사에 길이 빛날 력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무진막강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랑떨치는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과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솟아오른 우리 조국의 위상은 바로 이날과 잇닿아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서 한평생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계시면서 품들여 마련해주신 선군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이 땅위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북조선의 새 령도자 김정은원수가 목선을 타고 서남지역 장제도와 무도를 현지시찰한 기록영화가 세상을 공개되자 세계는 충격에 빠져버렸다. 신문방송들은 앞을 다투어 특집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만큼 세계의 관심이 김정은원수에게 집중되어있고 적대세력들의 촉각이 북조선의 동태에 예민해있다는 증거라고 할수 있다.

이 소식에 접한 이북의 민중은 물론이고 이날과 해외동포사회에서는 지금 《김정은열풍》이 세계를 일고있다.

그날 파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나 8월의 장마속에 사나움이 감돌았다. 썩어가고 썩어떨리는 파도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건강하게도 하였다.

전운이 감도는 서남지구 바다에 조그마한 목선 한척이 파도를 헤가르고있었다. 이 소박한 나무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가 타고계시였을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사실 나라안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나라를 사랑한다고 자부하고있는 사람들까지도 장제도와 무도같은 작은 섬들이 서해의 어딘에 위치하고있는지조차도 모르고있다. 서남지구전선의 이 섬들이 적대세력들과 항상 첨예하게 대치하고있고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이라는데는 틀림없다.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 바로 이런 곳을 찾아가신 것이다. 부근의 남측지역

에서 한달이 멀다하게 화약냄새가 풍기고 침략전쟁연습이 그치지 않고있는 이러한 최전방 섬에서 초소를 지키고있는 병사들을 찾아 김정은원수님께서 가신것이다. 정녕 그의 모습은 천아버지의 모습이었듯 거룩한 령도자의 모습이였다. 그러나 그의이제는 늘 웃고만 계시지 않으셨다. 섬에 올라 맞은편 적진을 바라보실 때 그의 안광에서는 떨떨 불이 일었다. 우리의 령도에 단 한발의 포란이라도 떨어진다면 즉시적인 섬멸적반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선으로 이어가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바로 그날 이곳 섬방어대들을 시찰하시면서 이런 추상같은 명령을 내리셨다. TV를 통해 이 소식에 접한 이북의 전체 군대와 민중들은 김정은원수의 모습을 우러러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다. 김정은원수의 령도분과 항상 첨예하게 대치하고있고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이라는데는 틀림없다.

불쑥 이 순간 나의 머리에는 올해 태양절 아침에 김일성광장에서 직접 들었

던 김정은원수의 축하연설이 떠올랐다. 《나는 성스러운 선군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동지들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전우가 될것이며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책임을 다할것입니다.》 그때 그의 육성연설을 듣고있던 나라 민중들과 이 소식을 전해들은 남녘과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까지도 무엇이든 표현할수 없는 격정을 휩싸여있었다고 한다. 장제도! 무도! 비록 여럿 겹쳐보이지 못한 섬들의 이름이었지만 충격은 말할수 없이 컸다. 사람들의 입에조차 오르내렸던 이 섬이 이제

부리는 김정은원수의 존함과 더불어 그분의 민중사랑이 전설마냥 꽃피는 섬, 침략자들의 도발을 무자비하게 짓뭇개버릴 신비의 섬으로 불리워지게 된것이다. 기록영화화면을 통해서 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의 영상은 너무도 자애롭고 너그러웠다. 한 품에 민중을 다 끌어안을 크 나른 도량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남과 북, 해외동포들까지도 포함한 7천만 온 겨레를 한품에 안을 위대한

최고사령관에 대한 열화와 사랑과 믿음의 폭발시킴기에 너무도 충분하였다. 령도자와 민중은 이렇게 하나로 뒹고있다. 세계가 부러워 찬양하는 일심일체의 과정을 너무도 실감나게 보여준 장면이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옹골찬 령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기에 사대와 망국을 숙명처럼 감수해야만 하였던 비참한 식민지약소민족이 바로 한세기전 우리 민족의 모습이였다.

그러나 오늘 조선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되였으며 여기에 사는 근로대중들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으로 존엄을 떨치고있다. 이북민중은 그 요인을 수령님, 장군님, 령도자부에서 찾는다. 이날 민중도 이것을 인정한다. 이북만의 자랑이 아니라 온 민족의 자랑으로 일컫는다. 조선의 이 자랑스러운 모습은 무도 장제도의 파도가 처절씩-장단을 친다. 무도의 파도가 흥겹게 춤을 춘다.

통일된 조선의 장제도와 무도가 눈에 보인다. 기쁨이 넘쳐나는 무릉도원-미화롭고 아름다운 이 섬들에서 울려나오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행복한 대가정의 웃음소리가 늘실늘실 파도를 타고 세계에 울려피지게 될것이다.

리준무(재미동포)

20원

=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시고 =

마안산빌딩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의 심중은 무겁고 아프셨다. 일제에게 부모형제들을 잃고 천산만악과 림해살원을 지나 유격대를 따라온 아이들의 정상은 너무도 가혹했다. 옷을 걸쳤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결레짝이나 매한가지였고 얼굴들은 하나같이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벌거숭이나 다름없는 아이들을 대하시는 수령님께서서는 그대야말로 자신의 수중에 있는 돈을 쓸 때라고 생각하셨다. 어머님께서 손끝에 피가 나도록 샅일을 하여 한푼두푼 힘겨웁게 번 로력의 열매였고 림종을 앞두고 유산으로 남긴 20원이였다. 지금껏 그 돈을 쓰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했다 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것을 쓰지 않으면 안될 경황이 때없이 생기곤 했었다. 자신의 호신부라도 같이 소중했고 가능하다면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의 표적으로 영원히 남기고도싶었던 돈이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그 돈으로 헐벗은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히도록 하셨다.

어머님께서 금전이 없이는 도저히 풀고나갈수 없는 역경에 처했을 때만 쓰라고 당부하셨고 또 장차 이보다 더 어렵고 험한 고비가 있을수 있으리라것을 변연히 알면서도 내해동안이나 간수해온 20원을 아이들을 위해 내놓으셨다.

이것은 1936년 항일대전의 나날에 있는 이야기이다.

새 조국건설의 첫기슭에서

나라가 해방된 이듬해 5월 어느날이었다. 새 민주조선건설을 위해 그처럼 분망하신 수령님께서서는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그날 손수 한자한자 펜을 달리시였다.

우리 나라는 해방되었으며 일제는 망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강산, 학교도 다 우리 나라, 우리 인민의것으로 되였다고 쓰셨다.

은 나라 아이들에게 보내시는 뜻깊은 서한에서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보배이다, 앞날의 조선은 우리 어린이들의것이다, 우리 나라의 앞날을 걸머질 우리 어린이

들은 새 나라의 새 어린이로서 힘껏 배우고 일하고 즐겁게 놀고 씩씩하게 자라야 할것이다, 사랑하는 새 조선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 나라의 씩씩한 새 어린이가 되라고 쓰셨다.

은 민족이 나라의 주인이 되며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일치단결하여 건국을 다그치고있던 그 나날 수령님께서서 어린이들에게 보내신 서한의 자자구구에는 후대들을 민족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기동감으로, 역군으로 여기고 보살피는 철세의 애국자의 숭고한 미래사랑이 담겨있었다.

회귀한 것 일 수록

어느해 초겨울이였다. 어느날 수령님께서서는 수산부문에서 백수십kg이나 되는 가재미 여러 마리를 산채로 잡은데 대해 아시게 되였다. 그것들은 정말 보기드물게 큰것이어서 사람들은 저저마다 큰 돼지 한마리만 하다고 또는 돼지보다도 더 크다고들 하며 이구동성으로 맞걸을 달며 자못 놀라와했다.

회귀한 가재미를 유심히 눈여겨보시는 수령님의 생각은 깊으셨다. 더욱이 파종을 일별하시며 이런것은 누구나 처음 볼것이라고 하신 그이께서는 날개랑 꺾지 말고 표본을 잘 만들어 학교들에 보내도록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물고기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하셨다. 한마리도 다른데 보내지 말고 교육기관에 보내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그러시고는 박제품을 담은 용기해결대책까지 손수 가르쳐주셨다.

색다른것이 하나 생겨도 후대들부터 생각하시는 수령님께서서는 나는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 아끼고 싶지 않다고, 이런 회귀한 물고기도 많이 보아야 바다에 대한 지식을 더 넓힐수 있다고, 후대들의 식견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셨다. 이렇게 되여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들에 박제품이 돌려지게 되었고 세월을 거름하며 후대교육에 리용되게 되였다.

본사기자

